LG화학, 1/4분기 R&D투자 330억원

LG생명과학·SK케미칼, 매출액 대비 실적 높아 … 국내 1위 삼성전자

LG화학이 1/4분기에 지출한 연구개발비(R&D)가 330억원으로 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10위로 나타났다.

또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G생명과학이었으며, SK케미칼도 비교적 많은 금액을 R&D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기업의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데 따르면, 출자총액 규제를 받는 18개 그룹의 12월 결산 72개 상장 계열기업(금융사 및 관리종목 제외)이 2004년 1/4분기에 지출한 R&D 비용은 1조9957억원으로 2003년 분기별 평균보다 3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상장기업들의 1/4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06.2%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R&D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지적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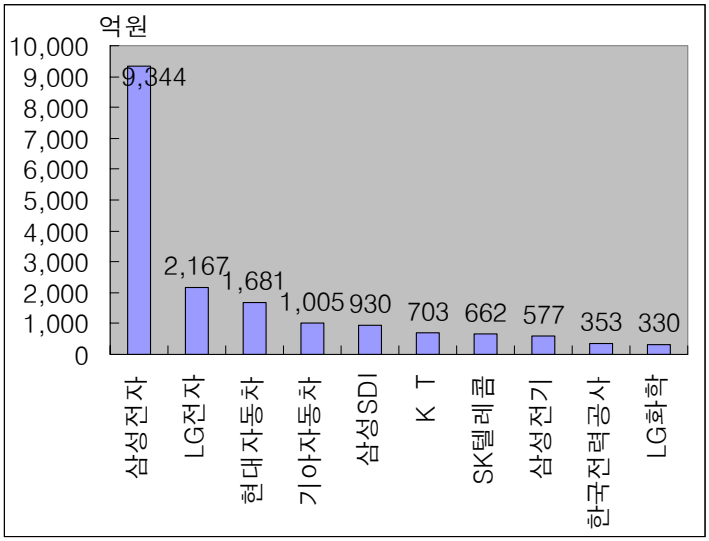
특히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중은 2.29%로 2003년 2.53%보다 낮아진 것은 물론 2001년 기준 미국과 독일 각 4.0%, 일본 3.9%에 크게 못 미쳤다.

R&D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9344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LG전자(2166억원), 현대자동차(1681억원), 기아자동차(1004억원), 삼성SDI(930억원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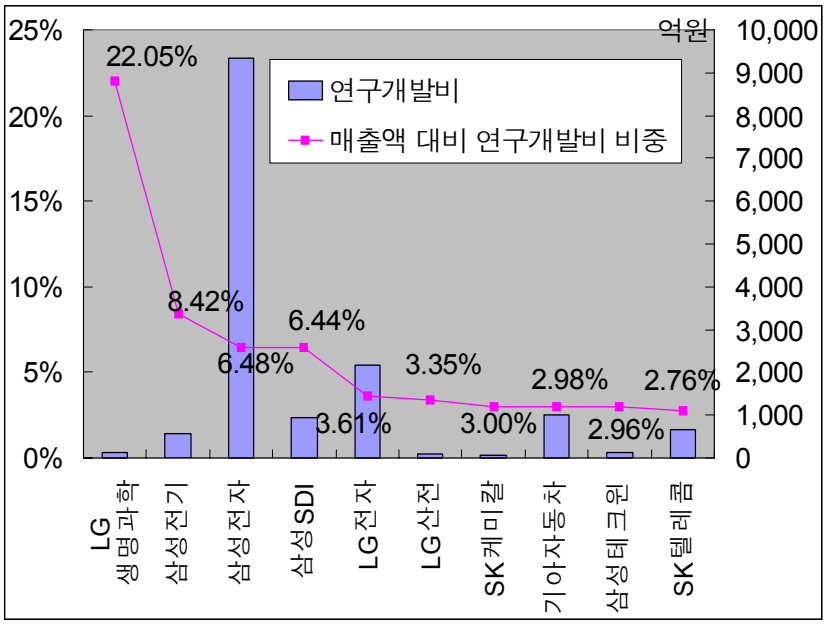
LG화학은 330억2100만원을 투자해 투자규모로는 10위에 올랐다.

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LG생명과학으로 22.05%였으며 삼성전기(8.42%), 삼성전자(6.48%), 삼성SDI(6.44%), LG전자(3.61%) 등이 뒤를 이었다. LG생명과학은 1/4분기 매출액이 532억9300만원에 불과했지만 R&D투자는 117억5000만원이었으며, SK케미칼은 매출액 2345억원에 R&D투자가 2166억51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3.0%에 달했다.

R&D투자 상위 10사(2004.1Q)



매출액 대비 R&D투자 상위 10사(2004.1Q)

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

한편, 2002년부터 R&D투자의 자산처리(무형자산 중 개발비) 기준이 강화돼 “연구개발에 의한 산출물의 확인 및 유용성 제시 등”의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산처리(개발비)할 수 없음에 따라 자산처리(개발비) 금액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5/27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